

국별 리포트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2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9

I. 일반개황

면적	1,104천 km ²	G D P	630억 달러 (2015년)
인구	89.8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702 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연방제 내각책임제	통화단위	Birr (비르)
대외정책	친서방 실리추구	환율(달러당)	21.6 (2015년)

-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(동), 수단(서), 케냐(남), 에리트리아(북)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,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(약 8,980만 명)임.
- 1974년 이후 사회주의 군부 정권 하에서 다수의 국경 분쟁과 내전을 겪으며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 하였음. 2015년 기준 1인당 GDP는 702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,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.
-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, 1991년에 멩기스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인민혁명민주전선 (EPRDF)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	8.7	9.8	10.3	8.7	8.1
소비자물가상승률	24.1	8.1	7.4	10.0	9.0
재정수지 / GDP	-1.2	-1.9	-2.6	-2.8	-2.8

자료: IMF, EIU.

□ 농작물 생산 감소로 경제성장세 둔화

- 에티오피아는 전력, 도로, 통신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증대 및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약 10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그러나 2015년 경제성장률은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가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급감의 여파로 전년 대비 하락한 8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8.1%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 추세이나 농작물 생산 감소로 여전히 높은 수준

-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및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그러나 기상 악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5년 물가상승률은 전년(7.4%) 대비 상승한 10.0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9.0%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
□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 추진으로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

- 보건, 교육, 인프라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%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
-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전년(2.6%)보다 약간 상승한 2.8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2. 경제구조 ·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및 열악한 농업환경

- 농업 부문이 GDP의 약 40% 이상을 차지하며, 인구의 85%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상조건, 농산물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의 변동에 취약함.
 - 산업별 GDP 구성(2014년): 농업 42.3%, 서비스업 42.2%, 제조업 15.5%
-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, 관개시설 부족으로 고질적인 가뭄 등 농업 작황의 변동성이 높음.
 - 총 경작가능면적이 8,500만 ha로 국토의 68%에 달하나, 이 중 1,600만 ha만 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초지로 이용되고 있음.

□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인력 부족

- 인구의 85%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제조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.
 - 2014년 에티오피아의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은 35%, 성인 인구의 평균 학교교육 이수기간은 2.4년에 불과함.

나. 성장잠재력

□ 자원 개발 가능성은 높은 편

- 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유럽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자원수탈이 적어 금, 탄탈, 석재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, Somali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스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.

-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5년 9월 중국 Poly Technology Company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탐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, 2017년 이후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내 신규 석유자원 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, 2014년 2월 영국의 New Age사가 Ogaden 지방에서 석유 및 가스층을 발견하는 등 여러 외국 기업들이 원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임.

□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

- 에티오피아는 2015년 기준 전력의 98%를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할 정도로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으며, 수력발전 잠재력 또한 45,000MW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2위임.
- 현재 청나일 강에 6,000MW 규모의 Grand Renaissance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2017년 완공 시 주변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다. 정책성과

□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득국 진입 추진

-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2년부터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0년에 발표한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(GTP: 2011~15년)에 따라 교통, 에너지, 교육 등 분야별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였음.
- 정부는 GTP를 통해 5년간 연평균 11%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, 실제로 연평균 9.9%의 성장률을 기록해 목표치에 다소 미달 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.
- 아울러, 1단계 GTP를 이을 GTP II(2015~20년)를 시행하였으며,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GTP II는 이전과 동일하게 정부 주도의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정부의 재정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외부 원조나 채권 발행 등 재원의 국외 조달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.

□ 산업단지 확충을 통한 경공업 육성 추진

- 에티오피아 정부는 향후 10년 간 산업단지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를 계획하고 있음.
- 현재 Bole-Lemi, Kilinto, Dire Dawa, Hawassa 등 산업단지에 우리 기업을 비롯한 여러 외국 기업이 진출해 섬유,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 상 수 지	-2,985	-2,821	-4,407	-7,893	-6,554
경상수지/GDP	-6.9	-5.9	-8.0	-12.5	-9.3
상 품 수 지	-7,289	-9,126	-11,337	-10,548	-11,196
수 출	3,258	2,967	3,260	2,856	3,037
수 입	10,547	12,093	14,597	13,404	14,233
외 환 보 유 액	2,262	2,368	2,496	3,256	3,256
총 외 채 잔 액	9,533	11,510	14,411	18,982	23,351
총외채잔액/GDP	22.5	24.2	26.3	30.7	33.5
D . S . R .	6.5	9.6	8.5	11.6	10.8

자료: IMF, EIU 및 OECD.

□ 자본재 수입 증가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에티오피아는 커피 등 1차 상품을 수출하고,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자본재 수입 증가 및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서비스수지 흑자 감소로 인해 -12.5%를 기록하였으나, 2016년에는 국제원조 확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9.3%로 개선될 전망이다.

□ 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

-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공여국의 원조에 힘입어 2015년 32.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, 월평균 수입액 대비 2개월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.

□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외채잔액 증가

-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2년 22.5%에서 2015년 30.7%로 상승하였으며, 외채원리금상환비용(D.S.R.) 역시 10% 이상을 기록하였음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 안정

□ 인민혁명민주전선의 2015년 총선 승리에 따른 장기집권 유지 전망

- 군부를 중심으로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인민혁명민주전선(EPRDF)은 1991년에 Mengistu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후 2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음.
 - 현재 EPRDF는 TPLF(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), ANDM(암하라 민족 민주 운동), OPDP(오로모 인민민주조직), SDPDF(남부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전선) 4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EPRDF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547석 중 546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향후 EPRDF의 장기집권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.
 - EPRDF가 테러리즘 방지령을 근거로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 및 비정부 기구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견제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.

2. 사회 및 소요사태

□ 열악한 생활환경

- 2015년 UN개발계획(UNDP)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(HDI)에서 에티오피아는 총 187개국 중 174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.

- 국민 10,000명당 의사 수는 0.3명으로 보건·의료 서비스가 미비해 평균수명은 2014년 기준 64.1세에 불과하고,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은 1,000명 당 64.6명에 달함.
- 인구의 약 67.0%가 심각한 빈곤(severe poverty) 상태에 있으며, 약 30%가 극빈선(PPP, 1일 1.25달러)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.

□ 종족 간 갈등 및 테러위협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잠재

-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(34%), 암하라족(27%) 등 80여개 이상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족 간 갈등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.
- 오로모 해방전선(OLF) 등은 종족에 근거한 지방 분권주의 채택을 주장하며 소수 종족인 티그레이족의 권력 집중에 반발하여 대 정부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음.
-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바브*(al-Shabab)의 테러로 인해 에티오피아-소말리아 국경과 케냐 등 지역에서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위협요인이 잠재해 있음.

* 아랍어로 '젊음' 또는 '청년'을 의미하며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테러 무장단체

3. 국제관계

□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은 교착상태

- 1993년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한 후 1998년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. 2000년 12월 Algier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음.
- 그러나, 2002년 에티오피아가 자국에 속해 있던 Badme 지역을 에리트리아 영토로 확정하는 에리트리아-에티오피아 국경위원회(EEBC)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있음.

□ 미국 및 유럽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

- 에티오피아는 1991년 멜레스 제나위 정권 출범 이후 친서방 정책을 채택하여, ‘아프리카의 뿔’*(Horn of Africa) 지역에서 미국 및 유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.

* 에티오피아, 소말리아, 지부티가 자리잡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의미

-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, 유럽 역시 2015년 도로망 확장 및 식량 원조를 위해 22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에티오피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

- 고채무저소득국(HIPC)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1년 4.3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, 2004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: MDRI)의 체결로 14.9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수 차례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.

□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

- 2015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28.8억 달러 (단기 1.8억 달러, 중장기 27억 달러)로 동년 3월 대비 약 2억 달러 감소 하였으며 연체금액은 없음.

※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.
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30.7%, D.S.R. 11.6%로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.

2. 국제시장평가

〈표 3〉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E* (2013. 8)	D2 (2011. 11)
OECD	7 (2016. 1)	7 (2015. 10)
S&P	-	-
Moody's	B1 (2015. 11)	B1 (2014. 5)
Fitch	B (2015. 10)	B (2015. 4)

* OECD 등급 원용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 : 1963. 12. 23 (북한과는 1975. 6. 5 수교)
- 주요협정 : 경제기술협력협정(1992), 문화협정(1998), 무역협정(2003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11), 무상원조기본협정(2011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말 기준 13건, 1,137만 달러(누계기준)
- 교역규모

〈표 4〉 한·에티오피아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주요 품목
수 출	93,782	154,710	113,395	건설광산기계, 합성수지, 정전기기 등
수 입	24,802	55,220	55,434	기호식품, 곡실류, 축산부산물 등
교역규모	118,584	209,930	168,829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증대 정책으로 2014년까지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,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8.7%를 기록 하였으며 2016년에는 8.1%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- 공공부문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수지는 GDP의 2% 내외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,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경상수지 역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-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인민혁명민주전선이 2015년 5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둠에 따라 장기집권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.
-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인해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, 20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1.7%, D.S.R.은 11.6%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조재동(☎02-6255-5727)
E-mail : jjd8948@koreaexim.go.kr